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의 지역사회 기반 활용을 위한 제언¹⁾

Suggestion for Community-based Development with World Natural
Heritage Site of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고 선 영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I. 서론

2008년 9월 27일 제주발전연구원의 단합대회를 겸한 거문오름 등반대회가 열렸다. 거문오름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의 하나로서,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옹화구 등 3개 지구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등재는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하게 되고, 제주가 지니는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관광산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거나 자칫 개발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유산의 가치 훼손 위험을 극복하

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7월 세계자연유산의 첫번째 구체적 활용사례로서,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 개최는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의 첫시범대가 되었다. 이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유산을 소유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기대와 자부심을 북돋은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것이 가져올 지역활성화에 대해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연유산지구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생태관광 계획과 관리의 맥락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Beeton, 1998; Cater, 1994; Brandon, 1993; Drake, 1991 등), 최근 추진된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의 의의를 지역사회 참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 주민참여 활

1) 본 논단은 2008년 8월 25~29일간 개최된 제10회 세계섬학회(ISISA) 발표 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역사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보존되어야 할 세계적인 주요 유산으로 인정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inscription)’한 유산을 의미하며, 이때 유산(Heritage)을 유네스코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인규, 2008).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유산보호 운동의 취지로 조성, 1972년 문화지역과 자연지역 보호라는 분리된 운동을 통합하기 위해 세계 문화·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생물종다양성의 손실과 환경악화로부터 지역, 국가, 국제조직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의 유산은 소재국에 관계없이 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1978년 처음으로 12개 유산지구(8개 문화지구와 4개 자연지구)를 7개국에 지정한 이후, 2008년 8월 현재 전세계 145개국에 걸쳐 문화유산 679개, 자연유산 174개, 복합유산 25개로, 총 878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센터가 국제기구로 구체화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집트 아스완댐 건설 결정이었다. 아스완댐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보고인 Abu Simbel 사원이 위치한 계곡에 계획되었고 1959

년 이집트와 수단정부의 요청으로, 유네스코가 국제구호 캠페인을 실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약 8000만불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중 절반은 약 50개국의 기부로 이루어졌다. 이는 뛰어난 문화지역에 대한 국가들의 공유된 책임감과 유대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구호캠페인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유네스코는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의 지원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문화지역과 자연지역 보존을 통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1965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 세계최고 자연, 경관, 역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968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목적들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과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에 제출되었다. 결국 세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보호협정(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유네스코 일반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우리에게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양자 사이 균형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유네스코 홈페이지).

III.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지역들은 10개 선정기준 중에 적어도 1개를 충족해야 하고, 이들 기준은 세계유산개념 자체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정된다.²⁾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World Heritage Center, 2008).

i.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것.

2) 2004년 말까지 세계유산지구 선정기준은 문화유산 6개(기준 i~vi), 자연유산 4개(기준 i~iv)의 분리된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2005년 이후 일련의 통합된 10개 기준(i~x)을 적용받는다. 선정기준 i~vi까지는 문화유산 선정기준, vii~x까지는 자연유산 선정기준이다.

- ii. 세계 문화지역 내, 혹은 시대에 걸쳐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도시계획 또는 경관 디자인과 같은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 iii. 현재 존재하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비범하거나 독특한 증거를 내포하는 것.
- iv. 건축유형, 고고학적 혹은 기술적 복합물 또는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경관의 뛰어난 사례가 되는 것.

- v. 뛰어난 자연현상³⁾
- vii. 최고의 자연현상이나 독특한 자연미, 심미적 중요성을 포함한 곳.
- viii.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지형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적, 자연지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 ix. 육상, 담수(fresh water), 해안,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 관한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대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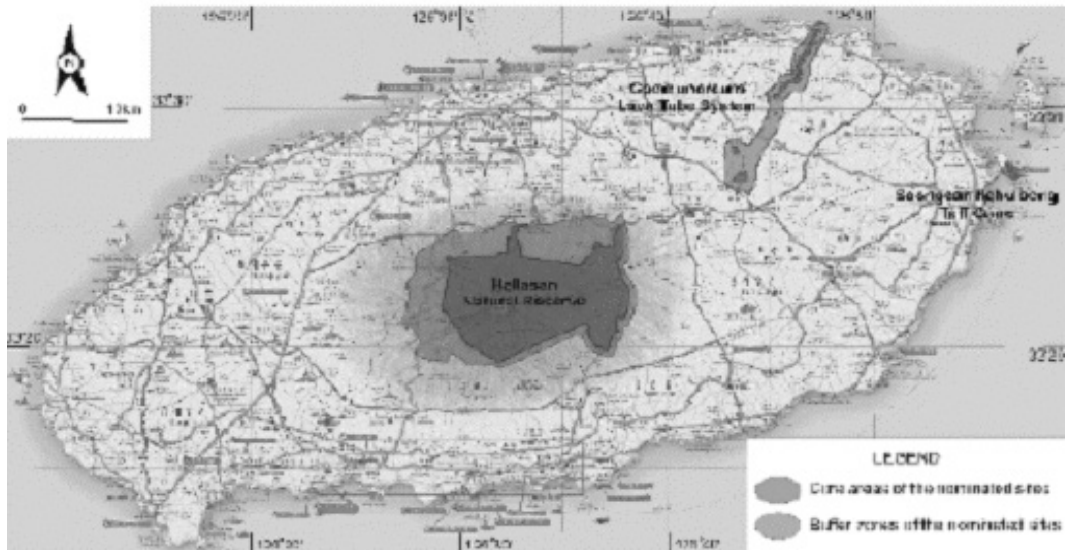


그림 1. 제주 세계자연유산 현황

- v. 전통적 인간거주지, 토지이용 혹은 해양이용의 뛰어난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문화를 대표하거나 특히 회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손상되기 쉬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것.
- vi. 훌륭하고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생활전통, 사고(ideas), 신념, 예술작품 혹은 문학작품과 직접적으로, 명백히 관

- 는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
 - x.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연서식지로서 과학적 또는 보존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곳⁴⁾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 일련의 연속된 유산지구로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3) 위원회는 10번째 기준이 될수 있는 한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되도록 하였다.

4) 그외 보존, 관리, 유산의 진정성 통합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1992년 이래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문화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용암동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 뽕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 당처물 동굴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동굴로 구성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나머지 두 구성요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화산의 모습들은 전 지구적 화산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특징적이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의 가치는 선정기준에 준한 OUV에서 확인가능하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앞의 선정기준 중 기준 vii)과 기준 viii)을 충족하였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http://whc.unesco.org/en/list/1264>).

기준 (vii) :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평가되고 있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전례가 없는 뛰어난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들이 동굴의 천장과 바닥에 발달하거나 검은 동굴벽을 부분적으로 장식하고 있어 비길데 없는 유일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바다에 솟아있으며 요새와 같은 성산일출봉은 극적이고 뛰어난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한라산은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포, 기암괴석과 주상절리가 발달한 절벽, 호수로 되어 있는 분화구를 갖고 있으며, 높이 솟아있는 한라산 정상 등은 경관적, 심미적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준 (viii) : 제주도는 움직이지 않는 대륙지각

판의 열점 위에 발달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몇 개 안되는 커다란 순상화산 중의 하나로서 특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용암동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굴들은 모두 잘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일부 용암동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중유석을 비롯한 다양하고 수많은 탄산염 이차 동굴생성물들로 장식되어 있어 장관을 이룬다. 화산의 구조와 퇴적학적 특징들이 잘 노출되어 있는 성산일출봉 옹회구는 썬치형⁵⁾ 화산분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

IV. 지역사회 기반 세계자연유산 활용: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을 사례로

〈표 1〉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참여기관	주요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본부	총괄 관리
한라일보사	기획, 마케팅
제주 환경참여연대	자연유산 해설 자연유산 해설 양성 교육
한라산 등산 학교	트레킹 참가자 안전 요원 트레킹 코스 모니터링
선홍 2리 주민	자연유산 해설 유산지구 관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유산의 기원을 제공하는 거문오름과, 거문오름 분출로 인해 생성된 5개의 용암동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북북동 방향으로 흐르면서 뽕뒤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 당처물동굴을 형성시켰다.

5) 1963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바닷가에서 형성된 수성화산인 썬치(Surtsey)화산과 성인이 같다.(한국지질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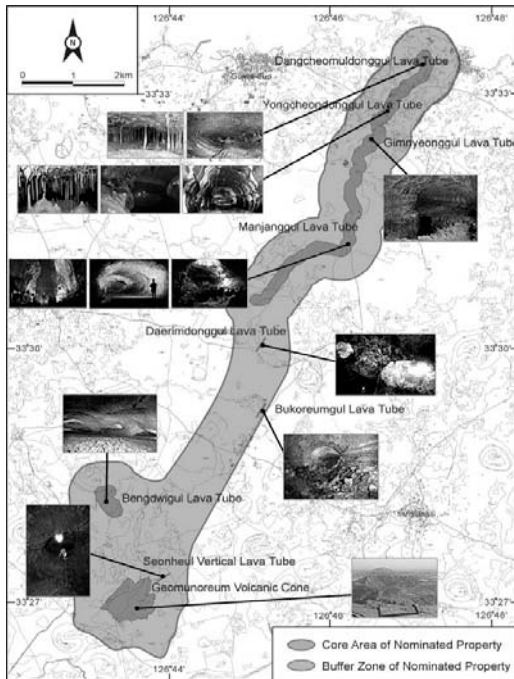


그림 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유산은 절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핵심지구가 각 용암동굴로부터 50m, 완충지구가 각 핵심지구로부터 500m 지역까지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이 이미 관광지로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에 반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미개방 동굴을 포함하고 있고 학술적, 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유산활용 및 보존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첫 활용 사례인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 추진은 지역주민, 제주도민, 관광객에게 고무적인 이벤트가 되고 있으며, 향후 제주 자연유산활용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는 2008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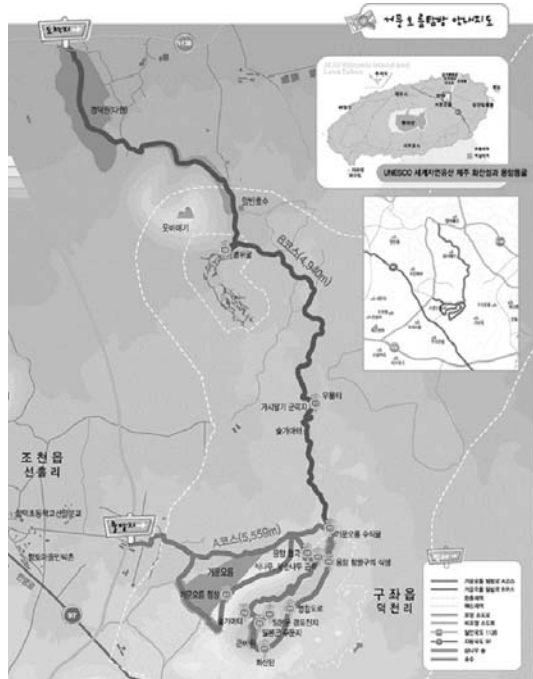


그림 3.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주요코스

가 별도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지역주민의 협조로 진행되었다(표 1). 트레킹 코스(그림 3)는 A코스와 B코스로 구분되며, A 코스는 거문오름을 중심으로, B 코스는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의 흐름을 따라 지상을 트레킹하도록 구성되었다. A 코스는 거문오름의 정상과 분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총 길이 5,559m이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시 정각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해설사들의 유산해설이 제공되었다. B 코스는 분출된 용암흐름을 상상하며 트레킹 하는 코스로서 총길이 4,940m이며, 자연유산 해설은 동반되지 않으나, 한라산 등반학교 동문회가 안전 및 코스 안내를 담당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 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유산 해설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OUV가 viii)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 viii) 지구역사의 주요 단계 표출

임을 고려할 때, 경관 관람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기준 vii)과는 별도로, 지질학적 형성과정에 대한 전문적 해설은 기준 viii)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 교육을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담당하였으며,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 총 16명의 해설사를 배출하였다. 특히 이중 6명은 거문오름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홍 2리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역사,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유산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자산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자부심이 고양되고 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 트레킹대회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역주민 6명에 국한되었던 해설사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향후 해설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트레킹 대회 추진을 통해 향후 자연유산 활용에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1. 파트너십 구축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이번 대회의 “거문오름 트레킹대회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관, 민간, NGO,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여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가 최초의 유산지구 활용 사례이며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낌으로써 앞으

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력있는 지역만들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2. 권한강화 Empowerment

세계자연유산은 인류공영의 자산으로서 철저한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유산지구 식생에 대한 불법 도채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권한과 강제성이 해당 지역 주민 또는 해당 유산지구 관리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아 지속가능한 유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거문오름과 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산지구의 경우, 향후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해당 유산지구 지역사회 주민과 관리자들에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요구된다.

3.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partnership with different groups

전체적 맥락에서 유산지구의 총괄적인 관리의 유산관리의 체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특성이 간과될 수 있는 단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각 유산지구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구별 제도화가 필요하다. 특히 제도화된 조직은 관보다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법인체 혹은 독립구성체의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수용과 자원보존의 측면에서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78월 국제트레킹 대회는 지금까지 발휘되지 못한 거문오름의 가치를 선보이는 첫 활용사례로 완전개방상태로 운영되었으나 9월부터는 예약정원제⁶⁾를 적용하여 제한적 탐방의 형태로

6) 주중에는 하루 100명, 주말 200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탐방코스는 A코스만 개방하고, 신청자에 한해 유산해설 서비스가 제공된다.

운영될 계획이다.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인체 내지는 독립 구성체를 통해 그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보와 인적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문화 specialization

자연유산해설사를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특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위한 역할과 자격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민은 일반적인 해설사들이 갖추지 못하는 유산 관련 생활 문화 및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데서 차별화되나 그 외 지질, 식생, 역사 등에 대한 전문적 정보에서는 한계가 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관광에 관광객들로 하여금 경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사의 역할은 단순한 가이드를 넘어 경관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산의 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매우 전문적이고 핵심적 부분이다. 현재 거문오름에서 해설사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제공하는 해설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격과정이 아닌 이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화 획득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되, 엄격한 전문화 제도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인규, 2008, 세계 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활용방안, 2008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 Beeton, S., 1998, Ecotourism: A Practical Guide for Rural Communities, Gollingwood : Landlink.
- Brandon, K., 1993, Basic steps toward encouraging local participation in nature tourism projects, In K. Lindberg and D.E. Hawkins (eds.), Ecotourism: A Guide for Local Planners, 134-151, North Bennington, VT: The Ecotourism Society.
- Cater, E., 1994, Ecotourism in the third world: Problems and prospects for sustainability, In E. Cater and G. Lowman(eds.), Ecotourism : A Sustainable Option?, 69-86,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Drake, S.P., 1991, Local participation in ecotourism projects, In T. Whelan (ed.), Nature Tourism: Managing for the Environment, 132-163, Washington DC: Island Press.
- <http://whc.unesco.org/>.
- <http://whc.unesco.org/en/list/1264>
- World Heritage Center, 2008,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79-95.
- 한국지질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도 지질여행 증보판.